

교부들의 성경해석 채승희 박사

IV. 초기 기독교의 성경해석(2) 04



초대교회 교부들의 성경해석은

당대의 유대교 성경해석 방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호에서는

쿰란공동체와 디아스포라 유대교의 성경해석 방법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초기 기독교의 성경해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한다.

— 편집자

IV. 초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2)

채승희 <<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 역사신학

IV. 초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1. 1세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 a. 예수의 성경해석
- b. 바울의 성경해석

2. 2세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 a. 영지주의의 도전: 발렌티누스, 마르시온, 프톨레미
- b. 영지주의 도전의 응전: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테르툴리아누스

3. 3-4세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 a.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해석: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지난 호에 이어 계속됩니다)

테르툴리아누스

2세기 초대교회 성경해석에 이레니우스와 버금가는 명성이 있던 자는

테르툴리아누스이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사고의 틀을 근본적으로 이레니우스와 공유한다.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의 성경해석에 대해 이레니우스보다 훨씬 극단적 자세로 대처하기도 했다. 그의 논문 *The Prescription of Heretics*(이단처방, 앞으로 처방으로 부름)에 따르면 성경해석에 관한 영지주의자들의 노력은 쓸모없는 노력이라고 비난하였다. 어떠한 정교한 방법론으로 성경을 본다면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거룩한 책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물어야 한다고 중조하였다.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성경은 사도적 전승에 뿌리 둔 교회에 속한 것으로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면 그 외 어느 누구도 이를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자들이 신비에 싸인 성경의 진리를 푸는 능력이 없음을 말하면서 교회만이 성경의 진리를 풀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의 고유한 권한을 말하였다면 테르툴리아누스는 영지주의자들은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진 고유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므로 성경을 사용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못 박고 있는 것이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사도의 가르침을 계승한자들인 사도성의 교회가 바른 성경해석의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 바른 성경해석이란 초대교회의 신조인 ‘신앙의 규범’과 동일한 것이며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 “신앙의 규범과 어긋나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¹⁾ 테르툴리아누스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과격한 결론이 이른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찾으라, 찾을 것이요…”(마 7:7)의 구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극단적 대응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자신들의 심오한 영적 지식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1) Tertulian, *The Presc.* 14.

때문이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영적지식에 대한 갈구는 믿음 안에서 모두 이루어 졌으므로 지식에 대한 추구함에 대한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끝이 났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이를 더더욱 갈망하며 알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위험요소라고 지적하며 영지주의자들을 경고하였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예수이름으로 흘러나오는 깊고 넓은 샘의 심오함을 추구하는 것조차 위험하게 보았던 외골수임에는 틀림없다.

3. 3-4세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1-2세기 초기교회의 성경해석은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에 기초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부분의 초기교회는 히브리성경(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그림자이며 예시적 기능이라고 하는 유형론적(typological) 성경해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꼭 유형론적 해석법만이 초기교회의 성경해석에 사용된 것만은 아니었음도 이미 살펴보았다. 바울만 보아도 기본적으로 유형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는 문자 하나하나가 그 너머의 의미를 투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밭에 감추인 보화”나 돼지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진주”와 같은 것은 천국의 비밀이나 진리를 말하고 있음은 교회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은유적인 해석이었다. 3, 4세기에 오면서 유형적해석과 은유적 해석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며 서로 견제된 학문으로 부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적 해석에 강하였고 안디옥 학파는 유형론적 해석에 강하였다. 우리는 앞에서 필로(유대 성서학자)를 통하여 희랍철학과 연관된 알레고리적 해석의 개요를 맛보았고 바울을 통하여 알레고리와 유형론적 해석이 씨실과 날실이 엮인 것처럼 조화롭게 성경을 보고 있음도 보았다. 3,4세기 초대교회 성경해석의

두 기둥, 약간의 긴장관계를 형성한 두 학파의 성경해석 그 대가들과 함께 살펴보자.

a.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동쪽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 일찍부터 사변적 학문과 철학이 발달하여 고대 학문의 중심적 역할을 한 도시 중 하나였다. 일찍부터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기독교 사상가들은 플라톤주의나 스토아주의와 같은 희랍철학과 기독교를 통합하는 신학적 종합을 시도하였다. Catechesis(요리문답학교)라고 불리는 신학교육 기관도 발달하였다. 그러므로 초기교회 역사에서 알렉산드리아는 플라톤주의나 스토아주의와 같은 희랍철학의 사고를 배경으로 정교한 논리적 교리들이 형성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도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철학적 신학을 기초로 한 은유적 성경해석의 중심이 되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플라톤주의는 이데아계의 비물질적 실재를 강조하면서 보이는 가변적 현상세계(비본질로써 이데아계의 그림자임)와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였다. 인간이 본질에 이르기 위해 가시적 현상세계를 떠나 이데아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본래적 속성인 영적본질과 연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의 세계는 불멸이며, 불변이고 진리였다. 스토아주의는 플라톤적 이분법을 거부하고 모든 현상계에 본질이 침투해 있는 범신적 체계로 우주만물을 이해하고 이 우주만물은 이성적 자연법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석하였다.²⁾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상계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상성성을 띤 무엇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시적인 것을 통해 본

2) 앞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주의의 성경해석'에서 유대 철학자 필로의 사상의 배경이 되는 희랍철학과 그 신비적 사변성이 농후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특성을 이미 언급하였다.

질의 무언가를 추구하던지 혹은 가시적인 것을 움직이는 불변의 본질적 힘의 원리를 보려고 하던지, 아무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희랍철학은 보이는 것 너머의 무언가를 시사하는 방향성 (*telos*)은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 최초로 이러한 사고로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 유대성경학자(혹은 철학자)로 은유적 해석의 대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였다. 성경의 문자는 문자 너머의 보이지 않는 영적 본질의 신비를 감추고 있으므로 그 본질적 의미를 찾는 것이 성경해석의 원리로 보았다. 이것을 기독교의 성경해석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은유적 사상을 꽃피운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클레멘트는 구약성경을 기독교인들의 책이라는 신념을 갖고 성경해석에 임한 자로 성경해석의 범위를 넓힌 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우주에 편만한 모든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로 통한다고 보았다. 기독교의 진리는 신적 로고스의 최종 계시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신학자들, 야만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모든 것의 시작이 숨겨졌고 진리는 수수께끼로, 아니면 상징들이나 은유들(*allegories*), 풍유들, 그리고 유사체로 전달되었다.”³⁾ 기독교인들의 성경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성경이 수수께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해석자들은 깊은 영적지식의 도(*gnosis*)에 이르러 성경의 언어들 감추고 있는 상징적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⁴⁾ 그는 구약은 물론 신약까지 모두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신구약은 초월자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3) Clement of Alexandria, *Stromata* V. 21. 4.

4) *Ibid.*, VI, 124, 5-6.

필로와 유사한 클레멘트의 은유적 해석의 예를 들어보면, 창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문자대로 6일 만에 완성된 세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단지 상징일 뿐이다. 신적인 개념으로 숫자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사라가 아이가 없었던 것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영적지식이 덕을 세울 만한 어떠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하갈과 함께한 시간은 아브라함이 높은 정신적 철학적 세계를 잊고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면서 신의(神義)와 떨어진 때였다. 하갈은 보이는 세상의 지혜를 뜻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게 한 요인이었다.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자연에게 배움의 자세로 선 학생이 아니라 진정한 철학적 경지로 승격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인간이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영지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여기서 클레멘트의 성경해석 원리는 중 중요한 요소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영지(*gnosis*)의 기능이다. 그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적인식의 지식인 영지를 기독교의 깊은 신비의 차원에 이르는 절대적 요소로 보았다. 영지를 통하여 신비에 싸인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므로 영지는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에 이르는 결정적 요소였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교회의 이단그룹인 영지주의자들과 흡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클레멘트가 말하는 영지는 믿음이 선행된 영지로 초기교회의 신앙의 규범 안에서 영성의 깊이를 추구하는 도구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비록 영지를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았지만 이레니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가 반박한 기독교 신앙의 적대자로서 영지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클레멘트는 헬라철학과 기독교의 진리를 대립시키지 않고 절충하였다.

스토아적 개념에서 로고스는 모든 존재의 합리적 구조로서 실재 속에

있는 보편적 법칙이자우주변화의 원리이자 도덕법칙이었다. 플라톤적 사고(엄밀히 말하면 신플라톤적 사고)에서 로고스는 초월적 신과 현상세계의 중재의 원리로서 신의 자기계시이다. 클레멘트는 우주적 원리, 구원, 도덕은 헬라의 철학에서 희미하게 나타날 뿐 이라고 보았다. 참 진리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고 완전해진다고 보았다.⁵⁾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은유적 해석의 절정은 오리겐이다.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 교회들뿐 아니라 초기기독교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 해석가로 볼 수 있다.⁶⁾ 그는 성경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보였다. 오리겐을 영적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다. 오리겐은 성서의 원문의 의미에 가장 근접하게 이르기 위해 히브리 본문과 히브리어의 헬라이어 음역, 그리고 다른 4개의 헬라이어 버전들(LXX, Aquilia, Symmachus, Theodotion)을 모아 역작 헥사플라(Hexapla - "sixfold") 성경을 편집하였다. 각각의 번역들을 6개의 칸을 만들어 나열하여 서로 비교대조할 수 있게 하였다. 5세기 교부 제롬(Jerome, ca. 347-420)은 헥사플라는 학문성뿐 아니라 주석을 포함한 강해집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도 성경을 6개 언어로 번역 대조한 정교하면서도 방대한 작품으로 칭송하였다.⁷⁾ 성경 한자 한자는 오리겐에게 신령한 영적 양식이자 음료였으며 바로 그 성경으로부터 그는 그의 방대한 조직적 신학체계를 세워 갔다.

오리겐의 성경해석은 무엇보다 변증적이었다. 영지주의의 도전은 3세

5) *Ibid.*, V. 12. 82.

6) Joseph W. Trigg, *Biblical Interpretation, Message of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9 (Wilmington, Del.: Michael Glazier, 1988), 23.

7) Froelich, trans. & e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16; Frances Young,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The First Christian Theologians in The First Christian Theologians*, ed. G. R. Evans ed (Malden, MA: Blackwell, 2004), 28에서 재인용.

기에도 여전히 교회에 위협적이었음이 오리겐의 글에 비추어 알 수 있다. 오리겐의 *Contra Celsus*(이후 *cont. cel.*로 표기함)에 의하면 켈수스(c. 175 C.E., 유대주의자로 알려짐)는 마르시온(영지주의 기독교)의 입장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켈수스가 기독교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였다(*cont. cel.* II. 6; V. 24). 본격적인 영지주의에 대한 대응은 *On the First Principles*(*princ.*로 표기 함)에 더 잘 나타나는데 *princ.* II에서 오리겐은 이 글의 동기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는 자들(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princ.* II. 4..1). 오리겐은 마태복음 21장 33-44절에 나타난 사악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을 향한 진노임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진노함은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 말하였다(*princ.* II. 4..4).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영(Spirit)은 신약시대 사도들에게 임하는 영과 동일한 영이 일하는 것인데, 유대인은 이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이 말하는 것들-이름테면 할례, 안식일, 동물제사 등-을 오직 글자 그대로만, 즉 문자적으로만 그 의미를 이해한 무지의 결과라고 하였다(*princ.* II. 7.2). 유대인들뿐 아니라 영지주의자들도 성경을 순전히 문자로만 보고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을 주장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순교자 저스틴과 이레니우스의 주장 같은 맥락으로 “마음이 완악하여 그리스도를 거부한 할례 받은 무지한” 유대인들과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의 참(영적) 의미를 보지 못한 자들로 비판하였다. 오리겐의 성경해석의 핵심이 자연히 문자를 너머 영적의미를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이어졌다.

오리겐의 성경해석에 있어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공헌은 이미 언급한 대로 은유적 해석, 즉 영적해석의 원칙에 있다. 그는 성경해석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쳤는데 이는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로부터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이 첫 목적이며 한편 기독교인들 스스

로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난해한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읽고 이해하여 바른 교훈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어려운 구절들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은유적 해석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오리겐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쓴 거룩한 책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읽고 보는 자들은 경건의 유익을 더하는 것이었다. 기독교가 세계로 거침없이 확장되어 가는 것은 성경의 거룩성을 증명하는 근거라고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었음도, 유대인들의 규례와 제사법이 복음 안에서 종식된 것도, 그리고 예수의 신성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들이 모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책임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었다(*princ.* IV. 1, 3-4).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라면 영적인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 것이 당연했다. 오리겐은 단순히 문자로만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princ.* IV. 2, 1-2). 영감에 기초한 성경은 마땅히 언제나 영적으로 읽혀야 하고 이해되어야만 했다. 영적인 눈으로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심과 오직 그로부터 나온 성자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의 진리가 이해된다고 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상존하는 빛(Light)과 같아서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는 베일이 드리운 듯 희미하며 장차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온전한 빛을 발하였다(*princ.* IV. 1. 6).

오리겐은 자신의 성경해석 이론을 제시함에 있어 (신)플라톤적 사고로 접근했다.⁸⁾ 마치 인간이 영, 육, 혼-플라톤적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성경도 세 가지 차원, 즉 신체적(*somatic*) 차원으로, 혼적(*psychic*) 차원으로, 마지막으로 영적(*pneumatic*) 차원으로 우리를 교훈한다. 신체적 해석은

8) J. W. Trigg, *Origen: The Bible and Philosophy in the Third-Century Church* (London and Atlanta: 1983). Also Cf. Karen J. Torjesen, *Hermeneutical Procedure and Theological Method in Origen's Exegesis* (New York: De Gruyter, 1986).

문자 그대로 성경말씀이 누구에게나 이해되는 단계의 성경해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데 다소 우둔한 사람에게조차 분명하다.”고 하였다 (princ. IV. 11). 성경의 혼적해석은 도덕적 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 지혜, 지식”의 재능을 얻은 사람들에게 열린다. 특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 텍스트의 더 깊은 의미를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혼적해석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신앙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끌어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적해석이 필요한데 이는 정신적, 신비적 해석방법이다. 영적 해석을 위해서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유형론도 포함)이 사용되어야 한다(*de prin.* 4.1.11). 영적해석을 통해서만 성경의 가장 깊은 의미의 절정에 이를 수 있으며 이것은 신앙의 경지가 완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리젠은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영적 해석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또는 장성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고전 2:6-7) 오리젠은 모든 구절들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모든 구절들이 문자적 의미만 가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특별히 구약성경의 가치는 문자적으로는 발견될 수 없다고 했다. 구약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자는 그릇되고, 불합리한, 무익한 결론으로 인도할 뿐이라고 주의했다 (*princ.* III. 6).⁹⁾ 오리젠은 성경의 저자(근본적인 저자는 영이신 하나님이다)가 성경을 서로 다른 층을 따라 그 의미를 심어 놓았다고 하였다. 우리가 성경저자의 제자라면 저자의 본뜻을 알게 하는 지혜를 사랑하고 그 열매를 얻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9) 실제로 그의 설교들에 잘 적용이 되어 있다. Origen, *Ho milies on Joshua* 6. 1; 21. 1.

오리겐이 은유적 해석방법을 주장하며 영적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다. 첫째, 모든 본문은 상징이나 비유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신비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모든 성경은 성경의전체적 운곽에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리겐은 실례를 말하면서 예수가 유대 해석가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메시야처럼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성경은 그날(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는 “들집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사 43:20)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rinc.* IV. 8). 그러므로 오리겐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는 경건한 자들이 영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드러난다고 강조하였다. 오리겐은 성경의 모든 문자들, 단어 하나까지도 신비적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그 예들을 보면 말(*house*)은 목소리를 뜻하는 것이며, 구름은 거룩한 자를, 샘은 가르침을, 비밀과 보화는 인간이 다다라야 할 이성 혹은 깨우침을 통한 진리를 말한다고 하였다. 오리겐에 의하면 은유적 해석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아담, 예루살렘=낙원, 여리고=세상

강도=적대하는 권세, 제사장=율법, 레위인=선지자, 사마리아인=그리

스도

부상=불순종, 짐승=주님의 몸, 여관=교회, 두 데라니온=성부와 성자

여관주인=교회의 수장, 돌아오겠다는 사마리아인의 약속=주님의 재

림¹⁰⁾

10) Origen, *Homilies on Luke*, trans. Joseph T. Lienhard, S.J., FC 94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 of America), Homily 34:138.

오리겐에 따르면 성경해석의 목표는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하였다.¹¹⁾ 성경을 바로 읽기 위해서는 모두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깊은 진리를 문자나 역사라고 하는 외투 속에 감추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리겐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였다.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겸손히, 그리고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성경본문에 다가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살피기 위함임을 각인시켰다.

그러나 오리겐이 말한 신비적 메시지를 위한 은유적 방법은 자칫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개인적 사색으로 각색하여 비약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황당한 추리와 상상력은 자칫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적 해석 방법은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텍스트를 분석하여 본연의 의미를 찾아 그 권위를 삼고자 하는 종교개혁자들에게 배척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현대 문헌학적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텍스트를 넘어선 성경의 숨겨진 비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성경의 은유적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 P. Tillich는 말하기를 재판의 경우 최고 재판소에서 법의 정신에 따라 판결할 때 이 법의 정신은 종종 법의 문자와 모순될 때가 많다고 하였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그 의미가 없어 보일 때는 반드시 겉으로 보이는 의미가 아닌 다른 계시가 숨어 있음을 상기하는 말이다. 2천여 년 동안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와 강해가 만들어졌다. 오늘도 한 본문을 두고 수많은 설교가 새로운 메시지를 담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은유적 해석이 아니라면 가능할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자들의 영감을 통해 다함이 없는 샘물처럼 흘러나와야 한다. 주님의

11) R. Heine, "Reading the Bible with Origen," in *The Bible in Greek Christian Antiquity*, ed. P. M. Blowers (Notre Dame, Ind: Univ. of Notre Dame, 1997), 132.

영으로 신비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설교강단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 채승희 경북대학교(B.S.)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를 나와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와 Union Theological Seminary-PSCE(Ph.D.)에서 역사신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가나안교회(분당 구미동) 부목사이며,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신학교에 출강하고 있다.